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5. 8. 25 ~ 8. 28

출장지: 일본

출장자: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I. 출장 개요

1. 출 장 지: 일본 도쿄, 교토 등

2. 출장기간: 2015. 8. 25 ~ 8. 28 (3박 4일)

3. 출 장 자: 차미숙 연구위원

※제20차 한일 국토계획 및 토지분야 전체회의 발제를 위해 한국 대표단과 동행(자료 별첨)

4. 출장목적

- 한-일간 국토계획 및 토지분야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1993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년 정례 협력회의를 교환 개최
 - 올해는 제20회 협력회의로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고, 상기 출장자는 동 전체회의에서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를 (한국측) 발표하기 위해 정부 대표단에 참여
- 아울러 상기 출장자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재검토 정책연구(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최근 일본의 새로운 국토형성계획 추진동향 청취 및 자료 수집이 목적임

II. 주요 출장일정

| 날짜 | 출발지 | 도착지 | 방문기관/장소 | 주요 수행업무 | 관계자 |
|---------|-----|-----|---|--|-----------------------------------|
| 8.25(화) | 김포 | 도쿄 | 이동 및 현장 방문 | 토라노몬 힐즈 (도시재개발사업) | 국토교통성 및 모리개발회사 관계자 |
| 8.26(수) | - | - | 국토교통성 미타공용회의소 (C, D, E 회의실) | 제20차 한일 국토계획 및 토지분과 협력회의 (전체회의) |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장 외 관계자 |
| | | | | 제20차 한일 국토계획 및 토지분과 협력회의 (국토분과, 토지분과회의) | 국토교통성 종합계획과, 지방광역계획과장 외 관계자 |
| 8.27(목) | 도쿄 | 교토 | 이동 | 신칸센 | - |
| | 교토 | 오사카 | 현장 방문 (전통역사건조물보존지구, 나라 평성성 복원사업지) | 근기지방정비국 추진사업 현장방문 | 근기지방정비국 부국장 외 관계자 |
| 8.28(금) | 오사카 | 인천 | 이동 | - | - |

III. 수행 사항

1. 제20차 한일 국토계획 및 토지분야 협력회의: 전체회의 발표 및 토론

□ 일본측 주요 발표내용: 새로운 국토형성계획 (국토교통성 종합계획과)

- 일본은 2015.8.14.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이 각의 결정됨
 - 두가지 위기에 대한 인식: 인구감소와 거대재해의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를 맞을수 있다는 위기 인식
 - 2014.7월 발표한 국토그랜드 디자인 2050¹⁾의 분석전망 및 전략을 대부분 수용하여 법정 계획화
 - *기존의 국토형성계획은 2018년이 종료년도이나, 시기를 당겨 새로운 국토형성계획(2015-2014)을 수립
- 인구감소와 고령화, 거대재해의 압박이 향후 국토정책 및 전략 설정의 기초로 작동
 - (장래 추계인구 동향) 일본의 총인구는 현재 1억2천만 명 정도이나, 2050년에 1억 명, 2100년에는 5천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20년 동안 인구치환수준(2.07)까지 출생률이 회복된 경우에는 인구감소의 속도가 완화되어 총인구는 2110년 경부터 9,500만명 정도로 안정적인 추이 전망
 - 고령화 전망 결과, 2010년 고령인구를 100이라 할 경우, 2050년까지 도쿄권의 증가가 두드러짐. 고령화율은 모든 권역에서 상승이 계속되며, 지방권이 일관되게 3대 도시권을 웃도는 추이

- 1) - 일본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여 국토교통성 차원에서 미래 정책현안 및 방향 설정 차원에서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을 2014.7월 수립·발표하였음.
- 일본은 1990년대 경제의 버블 붕괴이후 경제성장에 근거하여 국토장기비전인 국토형성계획(법정계획)을 수립, 활용해왔음. 그러나 장기 국토비전을 추진하는 동안 경제가 축소되고 정권이 바뀌는 등 정치적 변화가 있어왔음.
 - 1962년부터 10년간 ‘국토형성계획’ 등이 수립되어 왔으나, 정권에 따라 그때 그때 필요한 내용만 반영되는 등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음. 아베정권 출범이후 국토교통성 장관이 장래의 모습을 보고 국토의 발전계획을 제시할 것을 제안함
 - 2050년을 기준으로 ‘국토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비하여 어떤 것들을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음, 이러한 정치적 배경 외에도 인구감소, 노령화 심화 등이 장기비전 수립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 재해위험지역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국토의 약 35%가 재해위험지역임. 그러나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2010년)는 전체의 70% 이상으로 재해위험지역에 인구가 편중되어 있음

| 대상 재해 | 위험지역 면적 (국토 면적 대비 비율) | 위험지역 내 인구(2010) (전국 인구 대비 비율) |
|-------------------|--|----------------------------------|
| 홍수 | 약 20,000 km ² (5.3%) | 3,671 만 명(28.6%) |
| 토사재해 | 약 59,200 km ² (15.7 %) | 613 만 명(4.9%) |
| 지진재해(진도피해) | 약 44,300 km ² (11.7 %) | 5,888 만 명(46.3%) |
| 지진재해(액상화피해) | 약 48,700 km ² (12.9 %) | 5,743 만 명(44.8%) |
| 쓰나미재해 | 약 19,000 km ² (5.0 %) | 2,610 만 명(20.4%) |
| 5대 재해 중 하나 | 약 131,400 km² (34.8 %) | 9,442 만 명(73.7%) |

○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의 구성

-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은 3개 부 및 14개 장으로 구성됨

제1부 계획의 기본적 개념

- 제1장 국토와 관련된 상황 변화와 국토 조성의 목표
- 제2장 국토의 기본 구상
- 제3장 국토의 기본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향성

제2부 분야별 시책의 기본적 방향

- 분야별 시책에 대한 기술.
 - 제1장 지역 정비에 관한 기본적 시책
 - 제2장 산업에 관한 기본적 시책
 - 제3장 문화 및 관광에 관한 기본적 시책
 - 제4장 교통체계, 정보통신체계 및 에너지 인프라에 관한 기본적 시책
 - 제5장 국토 기반 스톡에 관한 기본적 시책
 - 제6장 방재·감재(減災)에 관한 기본적 시책
 - 제7장 국토 자원 및 해역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기본적 시책
 - 제8장 환경 보전 및 경관 형성에 관한 기본적 시책
 - 제9장 다양한 주체에 의한 공조사회 조성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시책

제3부 계획의 효과적 추진 및 광역지방계획 정책·추진

- 제1장 계획의 효과적 추진
- 제2장 광역지방계획 정책·추진

○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에서 제시된 기본 구상: “대류 촉진형 국토”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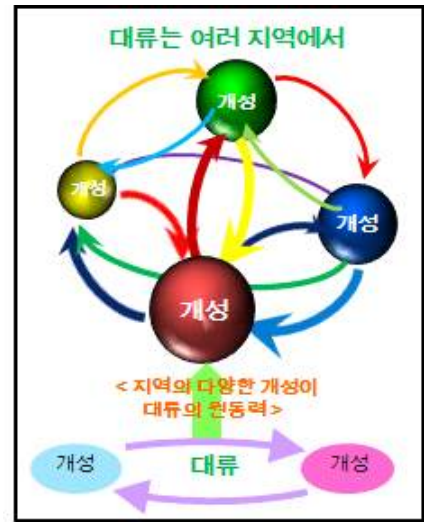
- 국토 조성의 목표: ① 안전함, 풍족함을 실감할수 있는 국가 ② 경제성장을 지속할 활력있는 국가 ③ 국제사회 안에서 존재감을 발휘할수 있는 국가
- 국토의 기본구상: 키워드는 대류, 대류 촉진형 국토의 형성
 - “대류”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여러 지역이 상호 연계해 발생하는 지역간의 사람, 물품, 돈,

정보의 활발한 쌍방향 움직임을 의미하며, “대류”는 그 자체가 지역에 활력을 가져오는 동시에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것임

• 대류촉진형 국토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콤팩트 + 네트워크” 국토구조 전략 제시

• 지금까지는 ‘交流’라는 표현을 썼는데, 교류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서로 각자의 개성과 특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에, 이를 만들고 교류하게 하는 것을 ‘온도 차가 있고 그 안에서 흐른다’는 측면에서 ‘交流’ 대신 ‘對流’라는 표현을 사용함

• 축소를 하면, 개성이 없어지는 것과 지역의 활력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했음. 그래서 각 지역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對流’ 라는 표현을 선언적으로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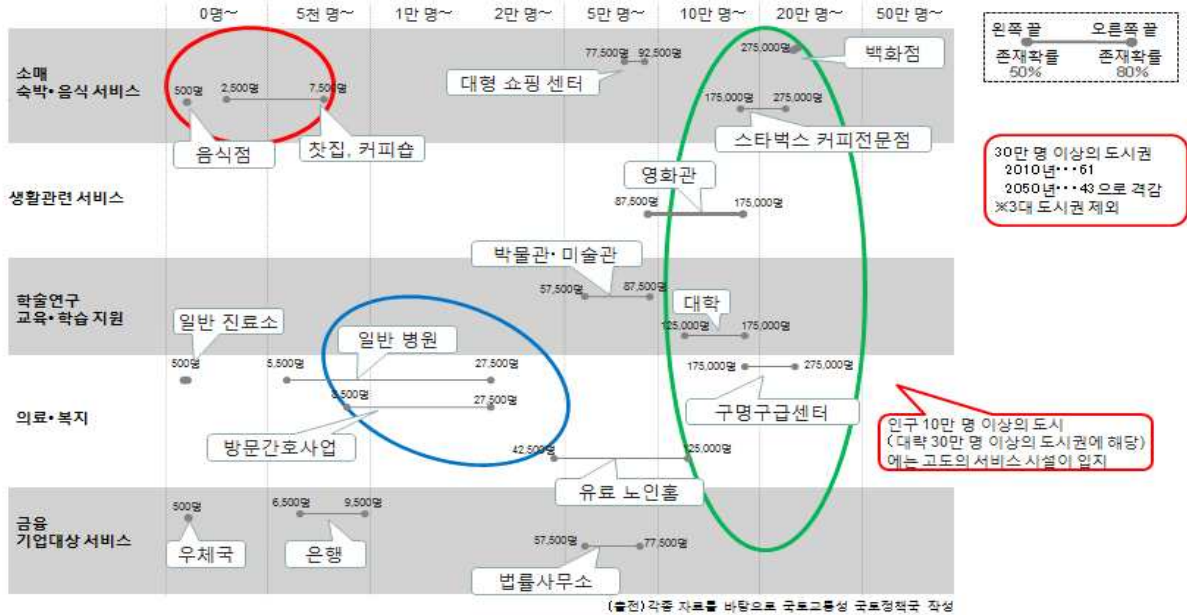
○ 개성있는 지방의 창출 전략

- 지역 구성의 미래상: 콤팩트+네트워크 개념을 기초로 다층적인 지역 구성을 구축

- 지역간 연계를 통한 경제·생활권 형성: 도시간, 지역간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기능에 따른 권역인구를 확보(약 30만명 수준)
- 콤팩트시티의 형성: 의료간호, 복지, 상업 등의 도시기능을 도시중심부나 생활거점으로 유도해 집약, 거주를 그 주변부로 유도해 이 구역들을 대중교통망을 비롯한 네트워크로 연결
- 작은 거점의 형성: 초등학교 구역 등 복수의 집락을 포함한 지역에서 상점, 진료소 등 생활서비스 기능이나 지역활동 장소를 도보로 이동할수 있는 범위에 모아두고 주변 집락과 커뮤니티 버스 등 교통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작은거점’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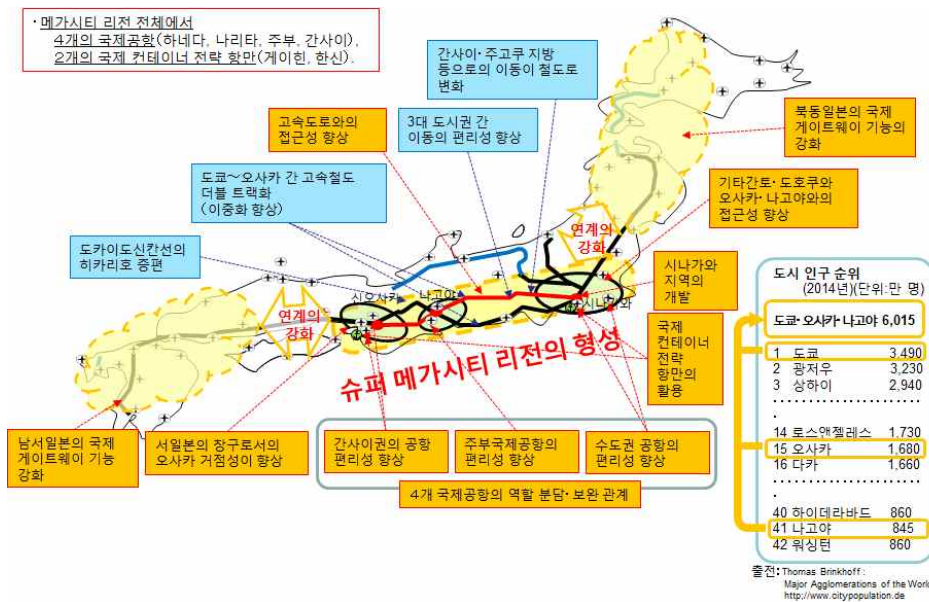
| 지역 구성의 미래상 | |
|---|--|
| <p>○ ‘콤팩트+네트워크’ 개념을 기초로 다층적인 지역 구성을 구축</p> <p>○ 각 지역이 지혜를 모아 스스로 미래상을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p> <p>(지역 간 연계를 통한 경제·생활권 형성) 도시 간·지역 간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기능에 따른 권역 인구를 확보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경제를 보유한 도시권> 경제성장의 견인, 고차지방도시기능의 축적·강화 및 생활 관련 기능 서비스 향상의 실현을 지향하는 ‘연계충추도시권’의 형성을 촉진. <그 외 도시권> 생활기능과 네트워크의 확보·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주자립권’ 형성을 촉진.</p> | <p>대중교통 유지·충실을도모하는대중교통망 설정</p> <p>도시기능유도구역 생활 서비스를 유도하는 구역과 해당 구역으로 유도하는 시설을 설정</p> <p>(콤팩트 시티의 형성) 의료·간호, 복지, 상업 등의 도시 기능을 도시 중심부나 생활 거점으로 유도해 집약, 거주를 그 주변부 등으로 유도해 이 구역들을 대중교통망을 비롯한 네트워크로 연결한 ‘콤팩트 시티’를 형성.</p> <p>거주유도구역 거주를 유도해 인구밀도를 유지하는 구역을 설정</p> <p>(작은 거점의 형성) 초등학교 구역 등 복수의 집락(集落)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상점, 진료소 등 생활 서비스 기능이나 지역활동 장소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에 모아 두고 주변 집락과 커뮤니티 버스 등의 교통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작은 거점’을 형성.</p> |

서비스 시설이 입지하는 확률이 50% 및 80%가 되는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3대 도시권 제외)



< 서비스 제공의 적정인구 규모 >

- 슈퍼 메가시티 리전 형성을 위한 구상
 - 3대 도시권 각각의 특색을 발휘하면서 일체화시킴으로써 세계 최대의 메가시티 리전을 형성
 - 세계에서 사람, 물품, 돈, 정보를 끌어모아 세계를 선도
 - 다른 교통기관과의 연계 강화, 교통 네트워크의 충실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 효과
 - 놀리지 링크 등 새로운 이노베이션 창출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2지역 거주 포함)의 실현



□ 한국측 발표: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차미숙, 별첨 자료)

- 메가트랜드 핵심요소와 국토의 영향이슈 분석, 미래 국토발전 비전과 6대 추진전략, 정책과제 등

□ 전체회의 종합 토론내용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인재육성 문제
 - 일본은 인구전망을 현재 1억 2천만 명에서 2100년 5천만명으로 감소 추세 전망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수도권 대 지방간 관계에서 지방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등을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혹시 일본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책은?
 - ➔ 일본도 지방에 사는 젊은사람들의 대도시 유입현상이 심한 편임. 이동을 적게하는 것이 방편이나 “대류”를 강조하면서,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취업하도록 유도함
 -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유능한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지방에서 흡수할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 지방에서 젊은사람, 중년여성, 고령자를 적극 활용할수 있는 전략(금전적 지원을 포함)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이 해보자!하는 활력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역할의 한계가 있음
 - ➔ 인력은 문부과학성 소관으로, 현재 지역대학 개혁작업을 추진 중임. 지방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개혁추진 요구하는 중이며, 이를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 배출을 기대함
- 일본은 지난 20-30년 전부터 인구감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임. 이에 대해 정부는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국민의 관심은 저조한 실정임
 - 국토그랜드 디자인 2050, 새로운 국토형성계획 수립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인구감소가 이루어질 경우에 현재의 생활유지 조차 곤란하고 사회경제시스템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Smart Decline의 개념 및 전략
 - 그동안 성장시대에 길들여왔던 국토정책 기조를 바꿔, 향후 인구감소시대에 적합하게 하기위해서 Smart Decline 개념의 정책적 수용 및 발전 노력이 필요
-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의 수립 배경 및 수립기간, 위상 등
 - 기존 국토형성계획의 목표연도가 2018년이나, 최근 동북지역 재해 발생 및 아베정권의 기초 반영 차원에서 작년에 발표한 국토그랜드 디자인2050을 토대로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을 수립

- 국토그랜드 디자인2050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므로, 국토형성계획 수립에 소요된 기간은 2년 정도라고 할수 있음
- 국토형성계획의 위상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예산문제 등으로 나름 고민이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토형성계획은 국토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봄. 향후 계획의 위상 제고와 관련해서는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내기위한 조치 마련이 필수적임



▲ 전체분과 회의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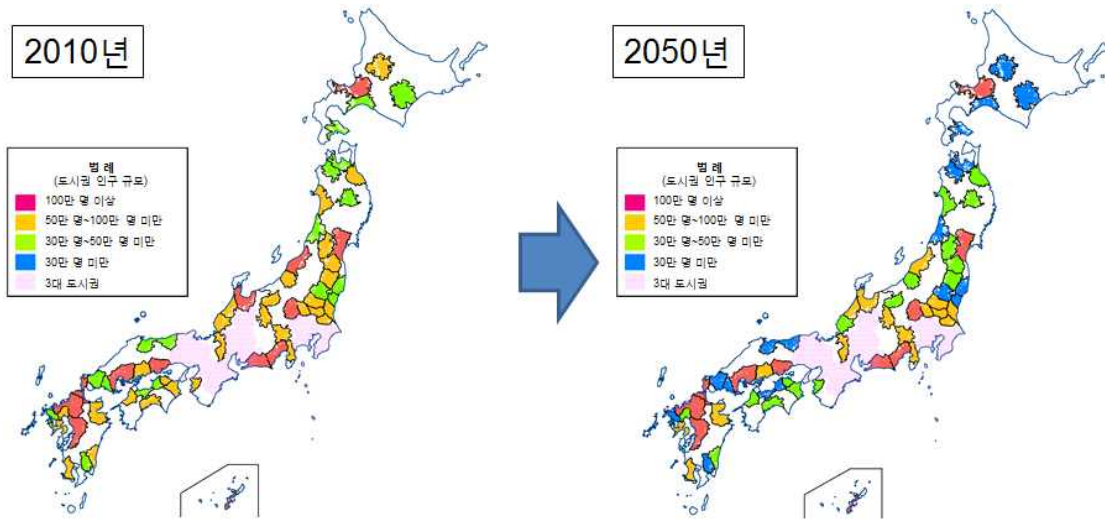
2. 제20차 한일 국토계획 및 토지분야 협력회의: 국토분과회의 발표 및 토론

□ 일본측 발표: 지역간 연계를 통한 지방 창출-연계중추도시권의 형성

○ 도시권의 주변 상황

- (인구의 저밀도화와 지역적 편재) 인구가 증가하는 지점의 비율은 약 2%이며, 주로 대도시권에 분포되어 있음. 한편, 2010-2050년 기간동안 인구가 절반이하로 되는 지점은 현재 거주지역의 60% 이상을 차지

- 30만명 이상의 도시권은 61개(2010년)에서, 43개(2050년)으로 격감 예상
- 일정규모를 유지할수 없는 도시권에서는 서비스 제공기능과 고용이 소실될 우려



(※1) 2010년의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로 60분 이내의 1km 메쉬(단위 면적)를 도시권으로 설정. 네트워크는 【재】일본디지털도로지도협회 '디지털 도로지도 데이터베이스 2011년판'에 따름.
 (※2) 2010년의 인구는 총무성 '국제조사'에 따름.
 (※3) 2050년의 추계인구는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의 메쉬(단위 면적) 추계인구에 따름.

○ 연계중추도시권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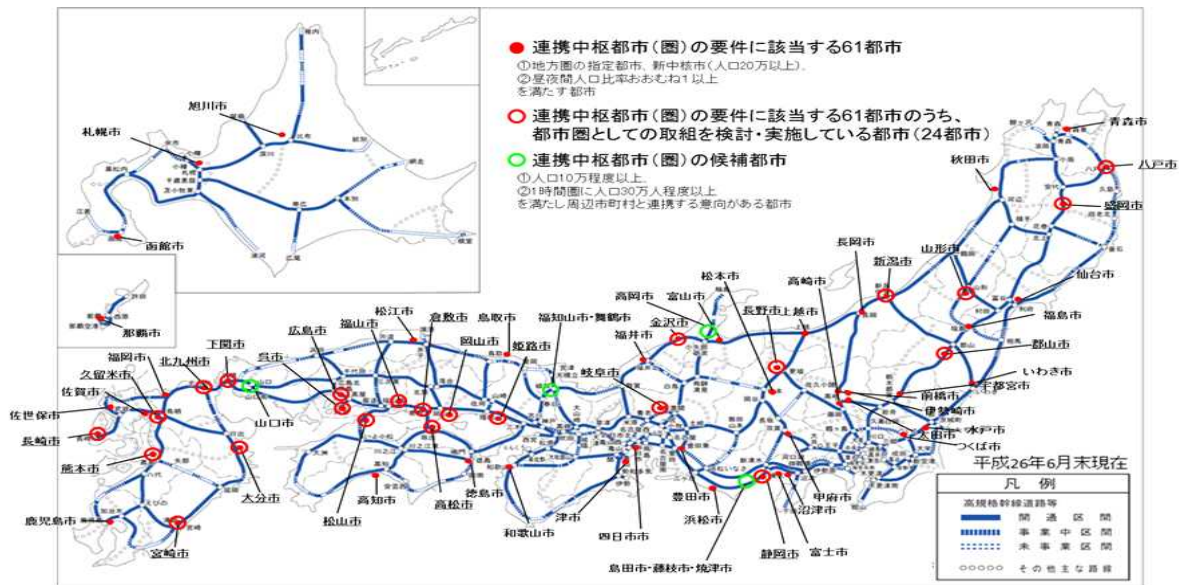
- 시정촌이 연계한 콤팩트화,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성장의 견인, 고차 도시기능의 축적.강화 및 생활관련기능 서비스의 향상을 실시함으로써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도 일정한 권역 인구를 보유한 활력있는 사회경제를 유지할수 있는 거점을 형성
- 연계중추도시권의 두가지 유형: 복수 연속형 도시권(복수의 도시가 역할을 분담), 중핵시 견인형 도시권(중핵적 도시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

○ 연계중추도시권의 추진계획

- 연계중추도시권 요건에 해당하는 61개 도시를 선정, 콤팩트화 추진계획

○ 지역간 연계가 어려운 이유

- 광역연계에 따른 장점 발견 곤란, 행정경계를 초월한 과제에 대응할 인재 및 조직 부족, 지자체간 공공시설의 통폐합시 조정 곤란



○ 地域間 연계 촉진과제와 대응책

- 지역경제 분석을 통해 지역자원의 발굴, 지역경제순환시스템 구축
- 경영감각 지닌 프로젝트 매니저에 의한 안건 형성, 관민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추진조직 지원
- 공공시설의 민간활용 등 출구전략 추진 등

□ 한국측 발표: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 (국토부 좌명한 사무관, 별첨 자료)

- 창조경제 선도 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 내용 설명

□ 국토계획분과 질의 및 토론

- 서비스시설의 적정 인구규모 설정방법 및 활용 논의
 - 계획 기준으로 활용



3. 현지 답사

- 토라노모 힐스 (재개발사업 현장)



- 교토 전통건축물 보존지역 답사(産寧坂)
 - 경관보존을 위해 옥외간판물정비사업 및 엄격한 경관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통건축물 보존지역에서 재해예방 활동 설명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in the Preservation District for Groups of Historic Buildings in Kyoto

1. Overview

In the preservation district for groups of historic buildings, buildings with historic design are concentrated and create attractive historic view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increased risk of fire spread and there are issues in disaster prevention because not only are those historic buildings mainly made with wooden structures, but wooden grilles and siding boards are used as exterior design and other wood materials are exposed behind ea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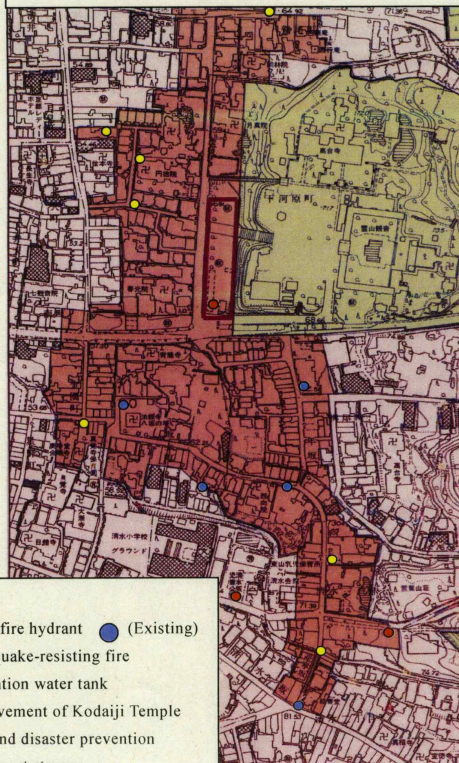
Especially, Sannei-zaka area and Saga-Toriimoto area have issues in the entry of emergency vehicles and securing evacuation route at the time of a fire due to narrow roads.

Therefor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disaster prevention plan in FY1996 in Sannei-zaka area and in FY1999 in Saga-Toriimoto area, and a disaster prevention plan has been established and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have been created in both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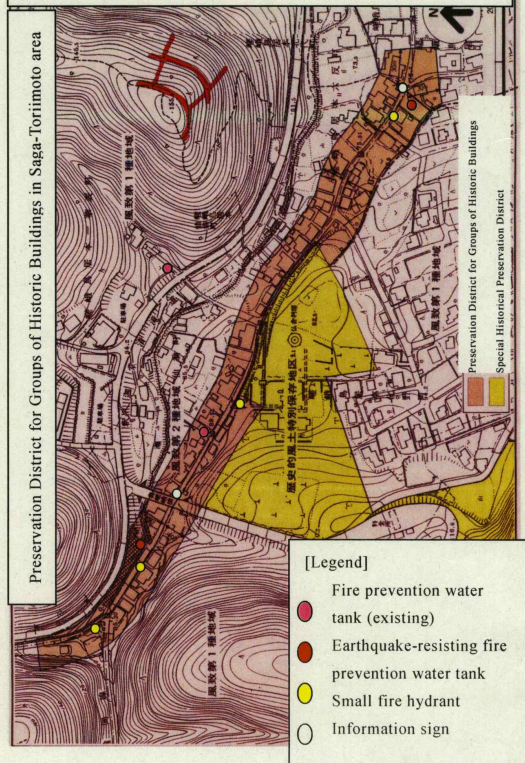
2.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 Area | Earthquake-resisting fire prevention water tank | Small fire hydrant | Information sign for evacuation route | Development of disaster prevention equipment storage and disaster prevention base |
|----------------|---|--------------------|---------------------------------------|---|
| Sannei-zaka | 3 | 7 | 0 | 1 |
| Saga-Toriimoto | 2 | 4 | 2 | 0 |

Preservation District for Groups of Historic Buildings in Sannei-zaka area



Preservation District for Groups of Historic Buildings in Saga-Toriimoto area



- 나라 평성궁적발굴 역사공원 추진사업(2008년 10월 각의 결정)
 - 평성궁적발굴 역사공원 추진사업은 국토교통성 지방정비분국(우리나라의 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하여 사업을 추진
 - 문화재청이 있으나 예산부족문제 등으로 국토교통성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고도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경관 중에서 평성궁적의 보전과 활용을 통해 ‘나라시대를 현재에도 느끼도록’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
 - 기본 방침: 특별역사·세계유산인 역사문화유적으로서 적절한 보존과 활용, 고대국가의 역사문화 체험 및 체험, 고대 나라의 역사문화를 알리는 거점 만들기, 국영공원으로서 활용성을 높인 공간 형성 등
 - 도입 기능: 역사문화 체험·체험기능, 역사문화교류거점 기능, 관광네트워크 거점기능, 자연적 환경보전 및 창출기능, 레크리에이션기능, 이용서비스 기능 등



IV. 시사점

- 일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거대재해의 임박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위기로 인식하고, 정부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을 수립·결정(2015.8.14.)
 - 2014년 7월 발표한 국토그랜드 디자인 2050을 토대로,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에서는 “대류축진형 국토의 형성”을 기본 구상으로 하여 각자 개성을 지닌 지역, 사람 등의 활발한 교류를 강조
 - 국토구성의 기본이념은 “compact + network”로서,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간 연계 촉진 및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어 공간발전전략을 제시
 - ※ 새로운 국토형성계획 수립을 통해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적 상황을 일반국민에게까지 널리 인식시키는 한편, 정책 추진의 활력을 제공받고자 하는 목적
 - 리니어 슈퍼시티, 연계중추도시권, 작은거점 전략 등 지역간 네트워크화를 위한 국토구조 형성 및 공간전략을 검토·제시

-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간 연계 촉진을 위해 폐노후 공공시설의 민간활용 등 다양한 출구전략 검토 등은 향후 인구감소시대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지자체간 공공시설의 통폐합시 조정 곤란문제 등이 대응책으로, 공공시설(도서관, 학교 등)의 민간활용 전략 등을 제시
 -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Smart Decline(감축관리)” 개념 및 전략에 대해 일본측 적극 관심을 표명함

IV. 부록 및 회의 추진일정 (별도 파일)

□ 전체회의 자료(일본측, 한국측)

- 한국: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 일본: 새로운 국토형성 계획

□ 국토계획분과회 자료(일본측, 한국측)

- 한국: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
- 일본: 지역간 연계를 통한 지방 창출- 연계중추도시권의 형성

□ 현지답사 자료

- TORANOMON HILLS 설명책자 (MORI)
- 京都, 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 설명책자
- 國營 平城宮跡歷辭公園 事業概要

제20차 한일 국토계획 및 토지분야 회의 참석자 명단

<한국 대표단>

| 구 분 | 소속 및 직위 | 직급 | 성 명 |
|------|--------------------|--------|-----|
| 단 장 | 국토정책관 | 고위공무원단 | 김형렬 |
| 국토분과 | 국토정책과장 | 부이사관 | 최임락 |
| | 산업입지정책과 | 행정사무관 | 좌명한 |
| | 국토정책과 | 행정주사 | 최두석 |
| | 국토연구원 | 연구위원 | 차미숙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경제처 | 차장 | 이상현 |
| 토지분과 | 지적재조사기획단 지적총괄과장 | 기술서기관 | 손종영 |
| | 지적재조사기획단 | 시설사무관 | 유상철 |
| | 충청북도 토지정보과장 | 시설서기관 | 양승소 |
|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처 | 차장 | 이강성 |

<일본 대표단>

□ 단 장

- 국토정책국장 혼토 신(本東 信, Honto Shin)

□ 대표단

- 국토정책국 심의관 箬林 陽介(Wakabayashi, Yosuke)
- 국토정책국 심의관 館 逸志(Tachi, Itsushi)
- 국토정책국 심의관 北本 政行(Kitamoto, Masayuki)
- 총무과장 熙野 和弘(Himeno, Kazuhiro)
- 종합계획과장 白石 秀俊(Shiraishi, Hidetoshi)
- 광역지방정책과장 甲川 壽浩(Kougawa, Toshihiro)
- 총무기획실장 近藤 共子(Kondo, Kyoko)
- 총무과기획실과장보좌 竹澤 孝明(Takezawa, Takaaki)
- 총무과기획실기획계장 伊賀川 直美(Igawa, Naomi)
- 총무과기획실기획계장 林 良佑(Hayashi, Ryouyusuke)
- 토지건설산업국차장 長谷川 博章(Hasegawa, Hiroaki)
- 토지건설산업국 국제계장 石田 忠春(Ishida, Tadaharu)
- 명해대학 부동산산학부교수 周藤 利一(Suto, Toshikazu)

제20차 한일 국토계획 및 토지분야 발표의제 및 발표자

가. 회의의제 및 발표자

| 구분 | 한 국 | 일 본 |
|----------|---|------------------------------------|
| 전체 | <p>미래 국토발전 전략</p> <p>발표자: 국토연 차미숙 박사</p> | <p>신 국토형성계획</p> |
| 국토 분과 | <p>혁신형 기업입지 조성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 수립)</p> <p>발표자: 산업입지정책과 좌명한 사무관</p> | <p>지방도시권에서의 민간주도형 지역활성화 사업</p> |
| 토지 분과 | <p>지적재조사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p> <p>발표자: 지적재조사기획단 유상철 사무관</p> | <p>지적정비사업</p> |

나. 제20회 한일 국토계획분야협의회 전체회의 의사진행표

- ◆ 의제 : 한국측 : 미래국토전략, 일본측 : 새로운 국토형성계획
- ◆ 사회 :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히메노 총무과 과장
- ◆ 장소 : 미타공용회의소 C, D, E 회의실 (3층)

| 일 시 | 의 사 | 발 표 자 |
|-------------|-----------------------------|--------------------------------|
| 10:00 | 개회 | 히메노 총무과장 (의장이 정해질 때까지 임시 진행) |
| 10:00~10:10 | 일본 수석대표 인사 및 일본대표단 소개 | 혼토 국토정책국장 |
| 10:10~10:20 | 한국 수석대표 인사 및 한국대표단 소개 | 김형렬 국토정책국장 |
| 10:20 | 의장 선출 혼토 국장이 의장으로 취임 | 히메노 총무과장 (의장 취임 후에는 의장이 진행) |
| 10:20~10:45 | 일본측 발표 (통역시간 포함) 질의응답 | 시라이시 종합계획과장 |
| 10:45~11:00 | 휴식 | |
| 11:00~11:10 | 한국측 발표 (통역시간 포함) | |
| 11:10~11:35 | 질의응답 | 차미숙 국토연구원 박사 |
| 11:35~11:50 | 기념품 교환 | |
| 11:50~11:55 | 사진 촬영 | 혼토 국토정책국장 김형렬 국토정책국장 |
| 11:55~12:00 | 폐회 | |
| 12:00 | 오후 스케줄 설명 | 다케자와 과장보좌 |

| | |
|---|---|
| <p>국토정책국 혼토 국토정책국장 기타모토 관방심의관 히메노 총무과장 시라이시 종합계획과장 고가와 광역지방정책과장 나카가와 총무과 기획실장 다케자와 총무과 기획실 과장보좌 하야시 총무과 기획실 계장</p> <p>토지·건설산업국 하세가와 차장 이시다 국제과 계장</p> <p> 스토 메이카이대학 부동산학부 교수</p> | <p>국토정책국 김형렬 국토정책국장 최임락 국토정책과장 좌명환 산업입지정책과 행정사무관</p> <p>국토연구원 차미숙 박사</p> <p>토지주택공사 이상현 산업경제처 차장</p> <p>지적재조사기획단 손종영 사업총괄과장 유상철 사업총괄과 시설사무관</p> <p>충청북도 양승소 토지정보과장</p> <p>한국국토정보공사 이강성 지적재조사처 차장</p> <p>* 통역 : 최월숙</p> |
|---|---|

다. 제20회 한일 국토계획분야협의회의 국토분과 의사진행

| 일 시 | 의 사 | 발 표 자 |
|---|--------------------------|---|
| 13:30 | 분과회 개회 | |
| 13:30~13:40 | 일본측 분과회 대표자 인사, 출석자 소개 | 기타모토 관방심의관 |
| 13:40~13:50 | 한국측 분과회 대표자 인사, 출석자 소개 | 최임락 국토정책과장 |
| 13:50~14:20 | 일본측 발표 (통역시간 포함) 질의응답 | 고가와 광역지방정책과 과장 |
| 14:20~14:40 | 한국측 발표 (통역시간 포함) | |
| 14:40~15:10 | 질의응답 | 좌명한 산업입지정책과 사무관 |
| 15:10~15:30 | 폐회 | |
| 15:30 | | |
| <p>국토정책국 기타모토 관방심의관 고가와 광역지방정책과 과장 오카베 광역지방정책과 광역계획관 아마시타 광역지방정책과 계장 나카가와 총무기획실 실장 다케자와 총무과 기획실 과장보좌 하야시 총무과 기획실 계장</p> | | <p>국토정책국 최임락 국토정책과 좌명한 산업입지정책과 사무관 국토연구원 차미숙 박사 토지주택공사 이상현 산업경제처 차장 통역 : 최월숙</p> |

라. 제20회 한일 토지계획분야협의회 토지분과 의사진행표

| 일 시 | 의 사 | 발 표 자 |
|---|------------------------|--|
| 13:30 | 분과회 개회 | |
| 13:30~13:40 | 일본측 분과회 대표자 인사, 출석자 소개 | 하세가와 차장 |
| 13:40~13:50 | 한국측 분과회 대표자 인사, 출석자 소개 | 손종영 사업총괄과장 |
| 13:50~14:20 | 일본측 발표 (통역시간 포함) | 미네자키 지적정비과 과장보좌 |
| 14:20~14:40 | 질의응답 | |
| 14:40~15:10 | 한국측 발표 (통역시간 포함) | 유상철 시설사무관 |
| 15:10~15:30 | 질의응답 | |
| 15:30 | 폐회 | |
| <p>토지·건설산업국 하세가와 차장 오사와 지적정비과 과장 미네자키 지적정비과 과장보좌 사이키 지적정비과 계장 오치 국제과 과장보좌 이시다 국제과 계장 스토 메이카이대학 부동산학부교수</p> | | <p>지적재조사기획단 손종영 사업총괄과 유상철 사업총괄과 시설사무관 충청북도 양승소 토지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강성 지적재조사처 차장</p> <p>* 통역 : 이양민</p> |